



청소년이 행복하게! CYA
남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신자 수신처 참조

(경 유)

제 목 2019년 남원시청소년상담축제 체험활동 참여 협조

1. 귀 학교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청소년상담축제를 통한 청소년들의 상담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또래친구들의 건전한 놀이문화를 제공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또래상담 발대식 및 연극 '친구사이' 관람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사 업 명 : 2019년 남원시청소년상담축제

나. 내 용 : 상담부스, 체험부스, 연극관람

다. 일 시 : 2019년 5월 25일(토) 10:00~15:00

라. 장 소 : 남원시 예가람길, 하늘중학교 강당

마. 대 상 : 관내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

바. 문 의 : 063-633-1977 (상담팀장 박봉리)

사. 참고사항: 부스체험활동과 연극관람 후 설문지 제출 시 자원봉사시간 인정

붙임 청소년상담축제 세부일정 1부. 끝.

남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수신처 : 관내 초·중·고등학교장

상담팀장 박봉리

센터장 김용성

협조자

시행 남청상담 2019- 56 (2019. 4 . 29) 접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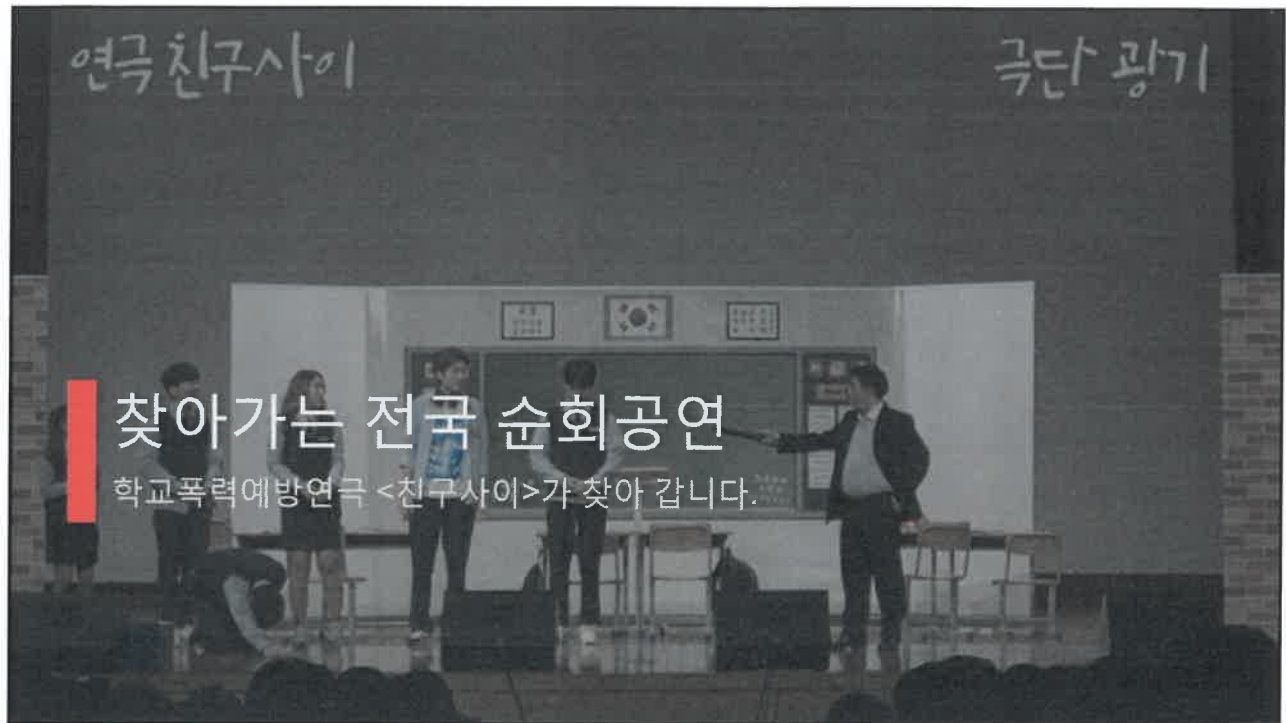
우55749 전북 남원시 충정로 72 남원시청소년수련관 3층 /

전화 (063)633-1977 전송 (063)633-1955 / www.nw1388.com / 공개

2019년 남원시청소년상담축제 세부일정

시 간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10:00~12:00	부스운영	-상담(3) -체험(4) -먹거리(2) -유관기관(5)	예가람길
12:00~13:00	점심식사 및 행사장 이동 -부스운영학교 학생 및 지도자 점심식사 제공		식당 및 도보
13:00~13:30 (30분)	또래상담 발대식	- 개회선언 - 국민의례 - 축사 - 센터장 환영사 - 발대식 및 또래상담 안내 - 시상식	-사회: 양이석 지원 팀장
13:30~15:00 (1시간 30분)	연극관람	- 학교폭력예방연극 "친구사이"	극단광기
15:00~	폐회 및 정리정돈		

-남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1

작품 설명

줄거리 : 아이들은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며 재밌게 놀고 있는 반면, 혼자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는 한 학생이 있다. 그 쓸쓸한 학생에게 찾아온 전학생!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따뜻한 마음에 소유자인 전학생과 친구가 되는데 전학생은 그 학생이 왕따라는 사실을 알고 자신도 피해를 받을까 두려워 점점 멀리하게 된다. 당황스러운 전학생의 마음은 복잡해지기만 하고,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서 용기를 내어 도와주지 못하고, 왕따를 피하기 시작하는데... 과연 전학생은 그 중립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연출 의도 : 학생들이 있는 곳에서는 따돌림과 폭력, 왕따 문제에 맞은 이슈와 많은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어른들은 수많은 노력을 해왔고 현재 이 문제가 많이 극복되었다고 통계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이들에게 속았던 것이지 극복되었던 건 아닙니다. 어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용어.. 그리고 변형된 따돌림의 방법 연극 "친구사이"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야기가 아닌 그것을 바라보는 방관자, 곧 주위 친구들입니다. 60분이라는 짧은 시간 속에서 지루함을 굉장히 싫어하는 학생들을 위해 접근하기 쉽게 코믹적인 요소를 많이 사용하였고 학생을 무대 위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공연과 학생들 사이의 마음을 열고 무대가 마치 교실인 것처럼 교실 뒤편에서 앞을 바라보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교실 속에서는 언제나 그것을 지켜보는 아이들의 대부분이 방관자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아이들은 교실에서 심각한 문제들을 보았으며,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었고, 그 누구도 심각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 속에서 방관하는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나섰을 때 왕따 문제가 더 사라지기 쉽다는 것을 알리는 연극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연극 "친구사이"로 인해 중간에 놓여있는 학생에 입장에서 시원하게 대변해주며 해피한 결말을 내려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연극을 통해 모든 아이들이 즐겁게 관람하지만, 그 즐거움 속에.. 다시 한 번 친구의 고통을 느낄 수 있고, 고통받는 아이를 도와주는 또 다른 친구를 바라보면서 모든 아이들이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은 바로 친구입니다